

#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3-19729	이 름	손새람
소 속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3월 3일
작 성 자	손 새 람 (손새람)

## I. 교환 파견 동기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해보고자 교환학생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때 구체적인 진로를 생각해보기에 앞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다른 국가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이 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교환교를 정할 때 크게 3가지의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한 교육수준을 가진 해외 대학교를 경험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여행하기 수월한 위치, 마지막으로 치안을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독일 뮌헨에 위치한 뮌헨공과대학교(TUM)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뮌헨공과대학교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공과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독일 내에서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Excellence Initiative(우수대학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학 중 하나로, 연구와 교육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뮌헨공과대학교는 뮌헨 내에 여러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앙(Main) 캠퍼스, 가칭(Garching) 캠퍼스, 프라이징(Freising) 캠퍼스가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캠퍼스가 다르며, 공학 및 자연과학 관련 학과의 경우 가칭 캠퍼스에서 많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전기정보공학(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의 경우 중앙 캠퍼스에서도 많은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뮌헨은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비교적 안전하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편이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도시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주변 국가로 이동하기도 비교적 수월하여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도시를 경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선착순으로 인터뷰 자리를 잡던 이전의 시스템과 달리, 2025년부터 주한독일대사관 해외포털에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비자 신청 절차가 개편되었습니다. 포털을 통해 신청을 한 이후에도 [Waiting List (약 4-8주 소요) → Preliminary Review (약 2주 소요) → 비자 인터뷰 → 비자 수령]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자 신청부터 수령까지 최대 3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비자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비자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가 '입학허가서의 늦은 발급'인 듯한데, 그 외에도 슈페어konto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드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허가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보다는 미리 포털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준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숙소 종류와 지원 방법

뮌헨공대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환교인 뮌헨공과대학교에 직접 등록(Application)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기숙사인 Service Packe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기숙사의 대부분 방을 혼자 사용하지만 화장실과 부엌의 공유 여부는 기숙사마다 다르며, 기숙사의 종류는 선택이 불가하고 추후 배정받게 됩니다. 기숙사는 뮌헨 내 다양한 역에 분포해 있는데, 소속 학과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와 등록 시 입력한 희망 월세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TUM 측에서 기숙사 안내를 할 때 'Service Packet을 신청하더라도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파견 온 교환학생 중에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OIA를 통해 파견하셨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독일 교환학생의 경우 생활비 증빙을 위해 개설해야 하는 슈페어konto(Sperrkonto)가 가장 큰 비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슈페어konto에는 매달 약 992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외에 뮌헨공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으로는 학기당 약 85유로의 Semester fee가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월 약 410유로 정도의 기숙사비가 발생합니다. (배정받는 기숙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00~500유로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숙사 입주 시에는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V-2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하였습니다.

#### 4. 기타 출국 전 준비했던 사항들

현지에 도착한 후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미리 알아보고 가면 마음이 훨씬 편한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유심, (필요에 따라) SEPA 계좌나 트래블카드, 독일의 교통권 등이 해당됩니다.

저처럼 특별한 준비 없이 출발해도 어찌저찌 생활은 가능하지만...! 유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계좌 역시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슈페어콘토(blocked account)를 익스파트리오(Expatrio) 밸류 패키지로 준비하셨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계좌만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지만, 생활하다 보면 추가 계좌가 필요한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조건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입독 이후 조금 더 차분하게 정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수강정정, 수강취소 방법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독일어 강좌 혹은 실습이 있는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TUMonline 사이트에서 정해진 기간 외에도 유동적으로 수강신청과 수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 수강신청과 별개로 학기 말에 시험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시험 등록까지 마치고 시험을 쳐야 최종적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7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다가 최종적으로는 4과목만 시험을 등록하여 과정을 마쳤습니다.

###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A1.2: 하계 계절학기에 '초급 독일어1'을 수강한 뒤 A1.2 레벨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레벨은 수강신청 전에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으니 그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뮌헨에서는 영어만 사용해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하지만, 지내는 곳의 언어를 익히고 일상 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꽤 즐거운 만큼 독일어 수업도 추천 드립니다.
-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I2DL): 매 학기 1000명 이상이 수강하는 유명한 강의입니다. 매주 프로그래밍 과제(optional)가 주어지고 학기 말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과제를 통해 모델을 직접 구현하고 학습시키며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 Praktikum Software Engineering: Lecture 중심의 강의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수업이 있는데, 그중 실습 위주의 강의를 경험해보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로 Git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TUMonline을 통해 과목검색/수강신청 하실 때 검색 필터로 수업형식과 수업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강의를 원하신다면 영어강의로 필터를 제한해두고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학사 강의 대부분이 독일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석사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니 잘 찾아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외국어 습득 요령

위에 언급하였듯 학교에서 제공하는 독일어 수업 'German as a Foreign Language'를 레벨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N에서 캠퍼스별로 매주 같은 요일에

'Language Café'(TUM과 LMU 공통입니다!)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의 테이블을 직접 열고,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 테이블에 앉으면 다른 학생들과 (독일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당 언어로 대화하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어 테이블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인 친구들과 서로의 언어를 연습하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공부하는 것도 도왔는데, 매주 비슷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V. 생활

###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저는 짐 싸기를 미루다가 전기제품이나 식재료들을 거의 가져가지 못했는데, 현지에도 '고아시아(goAsia)'와 같은 아시안 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한식에 필요한 식재료들은 한국보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밥솥을 가져가지 않아 냄비밥을 해 먹었는데, 개인 주방이 있는 기숙사의 경우 2구짜리 핫플레이트 외에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과 국을 동시에 요리하거나, 냉장 보관해 두었던 밥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개인 주방이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니 밥솥이나 멀티쿠커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수영복이나 스키복을 챙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Olympiapark에는 약 5유로에 1시간 3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수영장이 있으며, 뮌헨 근교에는 호수가 많아 여름철에는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유럽의 온천 시설들도 수영복을 착용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장비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대여할 수 있지만 스키복은 스키장에 따라 대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챙겨 가시거나 현지에서 중고로 구매 두시면 훨씬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2. 현지 물가와 생활비 수준

25-2학기 교환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실제 교환 기간에 이르기까지 유로 환율은 약 1,580원에서 최대 1,750원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뮌헨에서 외식할 경우 저렴하게 먹으면 한 끼에 약 8~10유로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식사를 하면 10유로대 후반에서 20유로대 중반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외식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평소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장을 보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와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매달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통해 입금되는 생활비(992유로) 중에서 공보험료 약 142유로, 도이칠란트 티켓(월 교통권) 약 43유로, 라디오세 약 18유로가 공통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저의 경우 휴대폰 요금으로 매달 약 10유로 정도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 3. 학교 및 여가 생활

학교에서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는 주로 교환학생 지원 학생 단체인 'ESN(Erasmus Student Network)'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Service Packet'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ESN 프로그램은 ESN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등록된 활동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Service Packet 프로그램은 안내 메일이 오면 역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을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Language Café' 활동부터 뮌헨 시티투어, 더 나아가 다른 도시로의 당일치기 여행과 스키캠프까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가는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또한 TUM에서는 매달 유명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N과 Service Packet에서 주관하는 활동들 외에도 동아리 소개제 등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하시면 여러 기회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Olympia park에 위치한 기숙사, Olydorf의 경우 기숙사 내에서도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기숙사의 Tutor들이 진행하는 'Weekly Tutor Events' (예: Video Game Night, New Residents Tour 등)도 있고,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베이킹 클래스를 신청하여 뮌헨에서 '두바이 쫄떡 쿠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도예 클래스에서 물레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Olydorf로 배정받은 신다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도시, 다른 동네에서 살아본 적도 없던 제게 독일에서 홀로 보내는 6개월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지금 돌아보면, 그 6개월이 꿈처럼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풍족하고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혼자 해낸 수많은 일들과 일상 속 작은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교류했던 시간들, 혼자 깊이 생각에 잠기던 시간들까지 무엇하나 빠짐없이 제게 소중한 경험이자 앞으로의 삶에 양분이 될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유럽 곳곳을 여행해보자는 생각으로 교환학생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는, 지금까지 항상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었던 만큼 타지에서 무언가를 온전히 혼자 해내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더 넓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싶다는 목표 또한 생겼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교환학생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체국에 찾아가 휴대폰 개통을 위한 본인 인증을 하고, 세금을 신청해 납부하고, 마트 점원분과 독일어로 소통하는 등 혼자 해낸 것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나중에는 우연히 마주친 여행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혼자서도 긴 여행을 떠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즐거운 추억이 정말 많았지만, 처음 홀로 떠났던 파리로의 여행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생생

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유럽에서의 생활이 많이 걱정되었지만, 역시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잘 해내고 잘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바빠 여행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연하고도 방대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